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12.(목) 08:00 배포 2026. 11. 12.(목) 08:00

‘2026 오늘전통축제’ 개막, 전통문화를 오늘의 즐거움으로

- 11. 12.~15. 문화역서울284에서 ‘복작복작, 오늘전통’을 주제로 행사 개최
- 전통문화 기업 104개 브랜드의 반짝 매장부터 체험, 공연, 강연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김경배, 이하 공진원)과 함께 11월 12일(목)부터 15일(일)까지 문화역서울284에서 ‘2026 오늘전통축제*’를 개최한다.

* 행사 기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입장 마감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

올해로 4회를 맞이한 ‘오늘전통축제’에서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즐기는 활기찬 풍경과 복을 짓고 나눈다는 의미를 담은 ‘복작복작(福作福作), 오늘전통’을 주제로 반짝 매장과 체험, 공연,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문화가 오늘의 일상과 취향 속에서 새롭게 이어지는 모습을 선보인다.

생활소품, 패션·한복, 식음료, 수공예품 등 104개 브랜드가 제안하는 오늘의 전통

이번 축제의 중심은 전통문화 상품을 직접 살펴보고 구매할 수 있는 반짝 매장(팝업 마켓)이다. 전통문화 창업기업 39개사를 포함한 104개 브랜드가 참여해 생활소품류, 패션·한복, 식음료, 수공예품 등 의식주 전반에 걸친 전통문화 상품을 선보인다.

▲생활소품류 분야에서는 전통 문양을 현대적인 깔개(러그)와 생활소품으로 재해석한 ‘스튜디오 아록’, 전통 생활 문화를 부엌살림과 소품으로 풀어낸 ‘솥밭’,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청자·백자 유리잔을 선보이는 ‘아티타’ 등 개성 있는 브랜드를 만나볼 수 있다. ▲패션·한복 분야에서는 단청 문양을 활용한 패션 소품 브랜드 ‘하치’, 전통의 조형미를 현대적인 장신구로 재해석한 ‘아틀리에 다린’, 일상에서 입을 수 있는 한복을 제안하는

‘바주요’와 ‘오묘’ 등이 참여한다. ▲식음료 분야에서는 쌀 조청을 발효해 증류주를 만드는 ‘공사사양조’, 전통 식문화에서 영감을 얻은 다양한 디저트 브랜드 ‘에움’, ‘고요도’ 등이 참여해 전통의 맛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와 함께 공예 선물 기획전 ‘공예로 전하는 마음’에서는 축하와 감사, 응원과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공예품을 제안한다. 관람객은 각자의 취향에 맞는 전통문화 상품을 발견하고, 전통문화 기업은 소비자를 직접 만나 새로운 시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전 세대가 즐기는 축제, ‘복’ 체험 행사와 공연, 아동극, 강연도 마련

행사장 곳곳에서는 ‘복(福)’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행사를 운영한다. 축제 공식 누리소통망(SNS)을 구독(팔로우)한 관람객에게는 입장 시 열쇠고리(키링)로 활용할 수 있는 ‘복(福) 카드’를 증정한다. 행사장 전 층에서 신라시대 놀이도구인 14면체 주사위를 대형으로 제작한 ‘데굴데굴 주령구’를 굴려 나온 결과에 따라 경품 추첨 행사인 ‘럭키 드로’에 참여할 수 있다. 2층 체험존에서는 가족의 다짐이나 소중한 가치를 문장으로 표현하고 족자로 완성하는 ‘오늘의 가훈’과 전통 생활소품을 조합해 나만의 열쇠고리(키링)를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밖에도 축제의 추억을 네 컷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무료 사진부스 ‘오늘, 신풍속도’를 운영한다. 특히 한복을 입고 현장을 방문한 관람객에게는 제품 할인 혹은 특별 증정품을 제공한다.

문화역서울284 아르티오(RTO)에서는 전통음악을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공연과 가족 관람객을 위한 아동극이 펼쳐진다. 13일 오후 5시에는 에스닉 퓨전 밴드 ‘두번째달’과 소리꾼 ‘오단해’가, 14일 오후 5시에는 국악인 ‘삼산’이 공연 무대에 오른다. 14일과 15일 오후 2시에는 예술단체 ‘클랩’이 그림책을 소재로 가족 아동극을 진행한다. 공연 이후에는 소리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체험 행사도 마련한다.

우리 옛 그림을 통해 전통문화를 새롭게 이해하는 강연도 이어진다. 간송미술관 탁현규 연구원이 14일에는 겸재 정선의 그림으로 조선의 한양과 오늘의 서울을 살펴보고, 15일에는 혜원 신윤복의 풍속화를 통해 조선 시대의 패션과 생활문화를 소개한다.

문체부 명수현 문화정책관은 "'오늘전통축제'는 전통문화의 창작자와 브랜드, 소비자가 만나 새로운 취향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자리"라며 "문체부는 전통문화가 일상 속 즐거움과 소비로 이어지고,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판로 확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026 오늘전통축제' 개요
2. '2026 오늘전통축제' 포스터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전통문화과	책임자	과장	조재일 (044-203-2550)
		담당자	서기관	임광식 (044-203-254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OPEN 인공지능 학습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1 2026 오늘전통축제 개요

□ 행사 개요

- ㅇ (행 사 명) 2026 오늘전통축제
- ㅇ (행사기간) 2026. 11. 12.(목) ~ 11. 15.(일) *개막행사 11. 12.(목) 14:00
- ㅇ (운영시간) 10:00~18:00 *입장마감 17:30
- ㅇ (행사장소) 문화역서울284
- ㅇ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 ㅇ (주 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ㅇ (참여규모) 총 104개 전통문화기업 *전통문화 창업기업 39개사
- ㅇ (행사내용) 전통문화 창업기업 및 관련 브랜드의 팝업 마켓을 중심으로 전시, 체험, 공연/강연 등 프로그램 운영

□ 주요 행사 구성

구분	주요 내용
오늘전통 마켓	공예/리빙, 패션/한복, 미식/전통차 등 전통문화 기반 상품을 소개 및 판매하는 팝업 마켓
미디어아트	중앙홀 미디어아트 <복작숲 : 전통의 새로운 풍경> 운영
기획전시	전통문화 창업기업 및 협력 브랜드의 상품/콘텐츠 전시
체험 프로그램	오늘의 가훈, 전통 키링 만들기, 주령구 등 참여형 프로그램
참여 이벤트	한복 패스, 포토부스, 럭키 드로 등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
공연/강연	전통문화와 현대적 감각을 결합한 공연 및 강연 프로그램
개막행사	주요 내빈 참석 개막식, 청년 예비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미디어아트 개막 퍼포먼스 및 라인투어

□ 주요 연계행사

- ㅇ (취향유람)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전통문화 창업기업 상품과 오늘전통랩 콘텐츠를 선보이는 사전홍보 행사
- ㅇ (한지문화 확산) <한지 하우스> 귀국전, <한지도서 특별전>, <한지 국제문화포럼> 등 한지문화 관련 전시/행사 연계

붙임2 2026 오늘전통축제 포스터

